

No. 2013-04

일본 경제 동향

(Japan Weekly Economic Digest)

2013. 01. 21

- ① 일본경제지표
- ② 주간 경제이슈
: 엔저의 가속과 걱정수준 논의
- ③ 경제정책동향
- ④ 일본기업동향
- ⑤ 한국관련워치

① 일본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 2012년 2/4분기 이후 수출부진과 함께 GDP의 마이너스 성장 계속
- 3/4분기 들어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감소와 함께 對한 직접투자가 크게 감소
- 엔화의 對미달러환율이 2012년 10월 엔저로 반전, 11월 80엔대 진입, 2013년 1월 들어 18일에는 일본은행의 추가금융완화 발표로 90엔대 전반까지 하락
- 2012년 7월 이후 경상수지흑자 축소경향, 11월에는 2.2천억엔의 적자로 반전

구분		2010	2011	20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질GDP증가율(%)		3.4	0.3	5.7			▲0.1			▲3.5			-		
수 출(천억엔)		678	653	45	54	62	56	52	56	53	50	54	51	50	-
수 입(천억엔)		625	697	60	54	63	61	62	56	58	58	59	57	59	-
對한국 수출		54.6	52.1	3.84	4.13	4.84	4.27	4.02	4.01	3.96	3.85	3.98	3.94	3.93	-
對한국 수입		26.7	32.9	2.75	2.74	2.92	2.58	2.67	2.73	2.78	2.44	2.42	2.70	2.82	-
직접투자(억달러)		572	1157	229			371			287					
對한국 투자		11	24	9.2			16.6			4.9			-		
소비자물가(%)		▲0.8	0.0	▲0.2	0.2	0.5	0.2	▲0.2	▲0.3	▲0.2	0.2	0.2	0.0	▲0.3	-
실업율(%)		4.9	4.5	4.6	4.5	4.5	4.6	4.4	4.3	4.3	4.2	4.2	4.2	4.1	-
경상수지(천억엔)		166.6	76.2	▲4.6	12	13	3.7	3.4	4.2	6.3	4.5	5	3.8	▲2.2	-
엔화 환율	對미달러	85.7	79.1	77	78.5	82.4	81.5	79.7	79.3	79	78.7	78.2	79	80.9	83.6
	對원화	1321	1391	1489	1434	1364	1394	1447	1469	1446	1438	1439	1401	1344	1288
외환준비고(천억달러)		11.2	12.9	13	13	12.9	12.9	12.8	12.7	12.7	12.7	12.8	12.7	12.7	12.7
은행대출금리(%)		1.57	1.48	1.45	1.44	1.43	1.42	1.42	1.41	1.40	1.40	1.38	1.38	-	-

주) 연도는 회계연도(전년 4.1~익년 3.31)

자료 : 일본경제신문, 재무성, 한국은행

□ 눈에 띄는 연구보고서

- 『일본경제재생을 위한 긴급경제대책』 내각부, 1월12일
*출처: http://www5.cao.go.jp/keizai1/keizaitaisaku/2013/0111_01taisaku.pdf
- 『경쟁력강화에 관한 연구회』 정책투자은행, 1월12일
*출처: http://www.dbj.jp/ja/topics/dbj_news/2012/html/0000011880.html
- 『일본경제전망수정 : 경제대책·엔저효과 반영』 제일생명경제연구소, 1월 17일
*출처: http://group.dai-ichi-life.co.jp/dlri/rashinban/pdf/et12_257.pdf

② 주간 경제이슈 : 엔저의 가속과 적정수준 논의

□ 수입 물가를 고려한 엔저의 한계

- 달러당 90엔대 전반까지 엔저가 가속되어 일본수출기업들의 증익기대감 때문에 주가도 상승하고 있음.
- 그러나 엔저의 단점을 우려한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는데 연료 등 수입가격의 상승, 기업수익이나 가계를 압박할 우려가 있기 때문임.
- 일본경제 전체로 볼 때, 엔저의 적정수준에 관한 논의도 활발한 가운데, 90엔을 넘는 엔저는 원재료가격 상승으로 기업의 채산성을 떨어트린다는 지적

□ 무역구조 변화로 엔저에 취약해진 일본경제

- 달러당 90엔은 과거 같으면 상당수준의 엔고임. 2010년 일본경제신문의 앙케이트조사에서는 경영자들의 60%정도가 바람직한 수준을 100엔 이상, 110엔 미만으로 응답하고 있음.
- 엔저에 대한 기업의 허용도가 2년 동안 20엔이나 변화된 셈임.
- 일본종합연구소에 의하면, 일본경제가 이전보다도 엔저에 취약해졌으며, 그 원인은 무역구조 변화 때문임
-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전 중단 및 유가상승으로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액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기업들이 엔저에 의한 연료비 상승에 민감해짐.
- 일본의 수출상품구조는 부품 등 반제품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수출에도 변화가 발생.

□ 엔 결제비율의 변화와 환율의 영향

- 수입은 달러표시 거래가 70%인데 비하여 수출은 50%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 수출은 엔 결제 비율이 2000년부터 약 4포인트 상승, 외화표시는 감소함에 따라, 그 만큼 엔저의 장점이 감소

- 엔화환율의 영향은 달러결제 비율이 높은 수입에 보다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엔저의 단점이 부각되기 쉬움.
 - 달러당 90엔 수준이 1년 동안 지속되는 경우, GDP 대비 0.6%의 소득이 해외로 유출, 경기하강 우려도 있다는 지적
- 그러나 일본기업들 가운데는 100엔이 적정하다는 이유를 들어 가일층의 엔저를 바라는 목소리도 있음.
 - 자동차와 같은 소비재는 수출가격이 판매량을 좌우하는 정도가 커, 엔저로 가격경쟁력이 강화되는 이점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임.
- 손익이 갈라지는 환율수준은 해외생산비율 등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환율의 적정수준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시장관계자들 사이에서는 90엔대까지의 엔저는 일본기업의 체력유지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

□ 환율의 수준보다는 안정이 중요

- 환율수준보다도 환율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지적임. 급격한 환율변동은 기업으로 하여금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비용이 들기 때문임.
 - 최근 2개월 동안 엔화의 대미달러환율은 79엔대에서 89엔대로 약 10엔 급락, 변동율이 상승
- 급격한 환율 변화는 기업의 의사결정을 지연시킴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저해. 엔고 시정과 디플레 탈출을 기치로 내건 아베정권으로서, 엔화환율이 90엔대로 하락한 후에는 그 수준으로 안정시키는 것이 과제라는 지적

③ 경제정책동향 : 일본은행, 추가 금융완화

- 일본은행이 추가 금융완화를 실시할 방침임. 작년 12월에 이어 2013년 5월 이후 9년 6개월 만에 2회 연속 금융완화임.
-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은 디플레이탈출을 위해 정책연대의 틀이 될 공동문서 내용에 합의.
- 일본은행이 2%의 물가상승목표를 채택하기로 하고, 일본은행 총재는 진척상황을 정기적으로 일본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됨
- 일본은행의 추가완화는 국채 등을 구입하는 자산매입기금 한도를 10조엔정도 증액하는 것이 중심이 될 전망. 2%의 물가목표 도입에 맞추어, 완화방침을 대내외적으로 명확히 제시하겠다는 의도임.
- 일본은행은 작년 2월 소비자물가의 전년비 상승률로 2%이하의 플러스 영역을 중장기적인 물가안정 목표로 정의하고 당분간은 1%를 달성할 때까지 강력한 금융완화를 계속하겠다고 한 바 있음.
- 그러나 2%의 목표달성 시기는 명시하지 않고 ‘중기적으로’ 등의 표현에 그침. 물가목표를 채택하는 여타 국가에서도 구체적인 시기는 명시하지 않은 예가 많다는 것.
-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이 논의의 장을 만들어, 일본은행 총재가 정기적으로 진척상황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금융완화 수단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중시하여 일본은행에 위임
- 디플레이 탈출을 위한 일본정부의 역할도 명시. 규제완화나 투자촉진 등 성장전략을 실행해 나갈 것임을 강조. 일본은행이 통화를 공급하더라도 투자대상이 없으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본정부도 공동으로 대처하겠다는 것

4 일본기업동향

- 베어링 분야에서 세계시장점유율 3위인 일본기업들은 1~2위의 유럽기업을 따라잡으려고 설비투자를 계속 늘려, 중국을 중심으로 증산을 서둘러움. 일본정공의 경우 해외매출액에 차지하는 중국의 비율이 50%에 달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일본의 대형 베어링업체들이 설비투자 억제에 나섬. 최대 업체인 일본정공은 중국에서의 설비투자 증강을 보류, 2014년 설비투자를 전기 계획에 비하여 10% 감소한 380억엔으로 결정
 - 일본 국내 2위인 NTN과 후지코시, 미네베어 등도 내년도의 설비투자를 25%~60% 줄이고 투자분야의 조정, 해외이전 등을 계획
- 중국시장에서 일본자동차의 판매실적 악화에 따른 영향이 베어링업체들에게도 파급. 각 베어링 업체들은 투자억제로 수익개선을 서두르는 동시에 자동차-중국의존으로부터의 탈피를 꾀하고 있음.
- 현재 일본 베어링업계의 최대과제는 자동차 의존형 수익구조로부터의 전환임.
 - 앞으로 성장전략에 필요한 것은 우선 베어링의 정밀가공기술을 활용, 자동차 이외의 분야를 개척하는 것임, NTN이 미국의 대형 항공기엔진 업체인 P&W로부터 수주에 성공한 항공기용 제품이 하나의 예임.
 - 급속히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스마트폰용 베어링등도 유망분야임. 실제 베어링 이외의 고부가가치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미네베어는 금년도에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80%나 증가할 전망
- 중국의존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는 지역분산도 과제임. 일본정공이 내년 북가동을 목표로 멕시코에 북미시장 공급용 신공장 건설을 결정하는 등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음.

5 한국관련워치

□ 한국가스공사가 日중부전력과 LNG 공동조달

- 일본 중부전력이 한국가스공사와 공동으로 유럽의 대형 에너지업체인 이탈리아 아탄화수소공사(ENI)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를 구입하기로 발표. 중부전력과 한국가스공사는 모두 세계 굴지의 LNG수요업체로서, 아시아지역의 업체들끼리 공동으로 구입하기는 최초
- 양사의 공동조달은 세계적으로도 값비싼 아시아의 LNG가격을 인하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
- 계약기간은 금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5년간. 중부전력과 한국가스공사는 기간 중 합계 약 170만톤의 LNG를 구입
- 한국가스공사의 LNG조달량은 연간 약 3,000만톤을 약간 넘는 수준으로 세계 최대이며, 중부전력은 약 1,400만톤으로 세계 4위. 중부전력은 하마오카원자력발전소의 전면 중단으로 조달량이 평년보다 약 40% 증가
- 아시아의 LNG조달은 구매자와 판매자간 1대1로 장기계약이 중심으로, 유럽 등에 비하여 LNG가격이 비싸진 주된 원인으로 작용
- 아시아의 대형 수요업체들끼리 손잡고 공급업체와 교섭함으로써, 단독으로 구입하는 것보다도 구입가격을 떨어트리고, 배분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유연한 조건도 붙이게 된다고 함

□ 아베노믹스, 한국과 중국이 경계

- 일본경제신문은 한국과 중국의 언론매체 등을 인용하면서, 최근 엔저에 의한 수출경쟁 격화, 잉여자금 유입 등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보도
- 한국에서는 재벌계 기업들의 경영실적 악화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수출기업이나 증권시장에도 지속적인 충격을 피할 수 없다고 보도
- 한국은 일본과 자동차, 철강, 조선 등의 수출을 놓고 경합하고 있어 엔·원 환율이 수익을 크게 좌우
- 또,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을 인용, 필요한 경우 미세조정(스무딩 오퍼레이션 : Smoothing Operation)등에 의한 적극적인 대응(외환시장개입)을 예상
- 중국도 일본의 금융완화정책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음. 위안화의 상승압력이 커지고 중국의 수출산업에 가일층의 감속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임
- 또 3조 달러를 넘는 외환보유고에서 점하는 엔 자산의 비중을 늘리고 있어 엔저진행시 위안화표시의 엔화자산가치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